유럽과 동양의 주거문화를 한곳에

KCC건설

SWITZEN

품격부문

KCC건설 스위첸(132표)은 〈명예의 전당〉 2015주택브랜드대상 품격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소비자들은 품질 우선, 완벽한 시공을 기초로 에너지 절감의 친환경 건축과 생활의 편의를 더한 특화설계로 최첨단 시스템 주거문화를 선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럽과 동양의 주거문화를 한곳에 담은 스위첸 브랜드는 중견건설사 아파트 선호도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주택브랜드 대상 품격 부문을 수상한 KCC건설은 대표적 아파트 브랜드인 '스위첸(SWITZEN)'과 주상복합 · 오피스텔 브랜드인 '웰츠타워(WELLTZ TOWER)'를 갖고 있다.

브랜드 '스위첸'은 2003년 Switzerland와 Zen의 더해 탄생한 말로 스위스처럼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유럽풍 라이프 스타일의 여유와 동양적이고 간결한 절제미를 가미한 Zen타입의 품격을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의 공간 창조의 의미를 담아 탄생했다. 여기서 Zen(젠)이란 선(禪)을 의미하는 불교용어로서 자연친화적인 마감재를 사용한 선의 아름다움과 여백을 통한 동양적인 절제미를 의미한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 표창, 훈장 수상 및 우수시공업체 및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는 등 과감한 기술개발과 연구에 전력을 쏟음과 동시에 뛰어난 설계와 완벽 시공의 과정에서 수많은 국내외 대표적인 건축, 토목공사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브랜드 론칭 후 현재까지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의 경영이념 아래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거문화 창달을 통해 고객이 신뢰하는 아파트와 기업을 건설하고자 하는 KCC건설의 기업정신을 담고 있다. 지난 2006년 첫 TV광고(KCC스위첸-곰편)을 시작으로 2014년 '아빠의 집' 편 까지 KCC건설의 브랜드 철학을 선보이고 있다.

2014년 광고 카피 '당신보다 더 큰 집은 없습니다'를 통해 건설사가 갖춰야 할 튼튼함과 책임감, 믿음 등을 아버지에 빗대에 고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KCC건설이 짓는 스위첸은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품질 우선, 완벽한 시공을 기초로 에너지 절감의 친환경 건축과 생활의 편의를 더한 특화설계로 최첨단 시스템 주거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한강신도시 핵심입지 KCC 스위첸 분양

녹지율 50% 달해 주거환경 최상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만 구성
3.3 ㎡당 1031만원 가격까지 저렴

KCC건설의 '한강신도시 2차 KCC스위첸'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1296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전용 84㎡ 단일 평형 6개 타입으로 구성되며 이달 중 본보기집을 개관할 예정이다.

상품적으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로만 구성, 4베이 및 3면 개방형 설계(D타입) 등으로 맞통풍이 가능하고 풍부한 일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 했다.

한강신도시 초입인 운양동 권역에 있어 김포한강로 진입이 쉽고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서울도심,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50%에 달하는 녹지율과 단지 전면은 조망권 확보, 단지 뒤로는 모담산이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한강변에 조성중인 생태공원, 수변공원(라베니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가까이에는 운양초교, 운양고 등이 있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 아이들의 통학안전도 좋다.

'한강신도시2차 KCC스위첸'이 들어서는 운양동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곳으로 한강신도시 아파트의 매매, 전셋값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운양동 일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은 3.3㎡당 1031만원으로 김포한강신도시 다른 지역들보다 평균 100만~200만원 가량 높다.

전셋값도 운양동 일대가 다른 지역보다 평균 90만~110만원 가량 높다.(부동산114 3월 시세기준)

이처럼 운양동 아파트값이 높은 이유는 한강신도시 초입으로서 김포한강로 등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고 한강신도시 계획상 생태환경지구로 명명된 만큼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때문이다.

'한강신도시2차 KCC스위첸' 분양관계자는 "한강신도시의 상승분위기 속에서 본 단지의 입지적 메리트, 조망권, 특화된 상품 등은 소비자들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